

거진저수지 반대 감사원에 탄원

독 높임공사 대책위원회, 지난 9일 ... 송강·송정·자산·거진 주민 340명 서명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추진하는 거진저수지 독 높임 공사에 대해 붕괴로 인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송강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지난 9일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거진저수지 독 높임 공사 대책위원회(위원장 함종성)는 지난 9일 저수지에서 발원해 거진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자산천 인근에 위치한 송강리·송정리·자산리·거진리 등 마을 주민 34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들고 서울로 상경해 감사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탄원서에서 “태풍이나 국지성 폭우가 올 때마다 저수지가 붕괴될

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현재보다 독을 더 높인다니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가옥에서 생활하고, 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지키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여수로의 토질이 붕괴에 취약한 풍암토인데 물을 상부까지 담아 놓고 많은 강우량에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차 폭우로 만수위가 났을 때 2차 폭우가 내리면 무방비 상태로 물이 하류로 내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지난 2월 16일 개최한 2차 주민설명회

를 들어본 결과 오히려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며 “저수지 하류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하오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2차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들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 “답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저수지에 작용하는 수압은 증가하지 않으며, 관리수위부터 만수위까지 물이 차는 동안 홍수유입량을 초기에 제어함으로써 저수지 하류 주민들의 홍수 대처 가능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거진읍 현내면

▶거진읍 시민기자
김일용(dragon4858@hanmail.net)
장공순(messsucher@hanmail.net)
▶현내면 시민기자
박선애(sarang365@nate.com)

※거진·현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개별주택가격 의견수렴·에너지절약 협조 구해

현내면 이장단 회의 ... “신뢰와 믿음 주는 현내면 되겠다”

현내면은 지난 10일 오후 5시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 관계자 및 16개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장회의에서는 최영국 신임 면장을 비롯해 새로 부임한 공무원들의 인사 소개에 이어, 부서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이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총무 분야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설치사업을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및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산업개발 분야에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협조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 물량 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농어



지난 10일 오후 5시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현내면 이장회의가 열렸다.

업인 영유아양육비,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영국 면장은 인사말에서 “면사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현내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화포리펜션

www.hwapori.co.kr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132번지
☎033-682-1223, 010-6309-0003

3대 전통막국수 전문점

화진포 박포수가든

www.parkposu.com

막국수 · 시골두부
도토리묵 무침 · 편육

MBC 찾아라 맛있는 TV방영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298-5
☎033-682-4856, 011-367-4856

“재미있는 축구생활·예의 갖춘 축구”

현내FC 조기축구회 장영철 회장 취임

현내FC 조기축구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현내면 복지회관에서 회원 및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및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1대 하용주 회장이 이임하고, 2대 장영철 회장(55세, 사진)이 취임했다.

현내FC 조기축구회는 지난해 1월 차오름 축구회와 한나루 축구회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결성됐다. 회원수는 70여명이다.

장영철 신임 회장은 “재미있는 축구생

활과 화합과 예의를 갖춘 축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회장은 1989년 창단된 차오름 축구회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장 회장은 “축구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들보다 깊다”며 “현재 사용 중인 축구장에 라카툼이 없어 고성군에 전지 훈련을 위해 찾는 선수단들이 불편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전지훈련을 위해 고성을 찾는

선수단들을 위해 고성군에서 축구 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장영철 회장은 고성 출신으로 고성중과 속초고를 졸업했다.

가족은 현내면 민원담당으로 근무 중인 부인 최해순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김일용 시민기자



거진·현내 광고문의

☎681-1666~7